

목포대학교총동문회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제8회 동문친선 골프대회 성황리에 개최



무안C.C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제8회 동문친선 골프대회 참가자들.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제8회 동문친선 골프대회를 2012년 9월 8일 무안 C.C에서 개최했다.

이번 골프대회에는 유진하 동문회장과 고석규 총장을 비롯해 교수, 교직원 등 31개 팀으로 구성된 122여 명이 참석했다.

유진하 동문회장과 고석규 총장, 이재정 재경동문회장, 천병식 골프준비위원장의 시타로 시작된 이번 골프대회는 서·남 코스에서 동시 티업으로 진행됐다.

골프대회가 끝난 후 연회실에서 식전공연 난타로 대회 시상식, 만

찬 등의 식순으로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유진하 동문회장은 대회사에서 “목포대학교, 총동문회 발전과 장학재단 설립에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 회장은 “학교 교직원분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동문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동문회 발전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고석규 총장은 “총동문회와 모교의 발전 그리고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 논하며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골프대회에는 김옥기(체육/80) 동문이 신페리오 우승을 차지해 트로피와 부상을 받았고, 박계춘 전기공학과 교수 동문이 신페리오 준우승을 각각 차지해 트로피와 부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접수비와 골프대회 후원금은 목포대학교총동문회 장학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3면 참조)

성명서

총장 직선제개선에 관련한 총동문회 입장

최근 총장 직선제 개선과 관련하여 이는 대학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목포대학교는 이미 교수평의회의 투표 결과 직선제 유지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적, 재정적 압박을 통해 학내 구성원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교육 과학 기술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칙 개정을 통해 총장직선제 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 당장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사업인 “교육 역량강화지원 사업”에서 모두 탈락하고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어 학내 모든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과 동문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심히 안타까울 뿐이다.

이는 지금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근근이 운영되고 있는 지방대학이라는 한계 속에서 너무나 크나큰 타격이 될 것이며 지방의 부실대학이라는 치명적 오명까지 뒤집어쓰므로써 목포대학교의 향후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재학생, 학부모, 동문, 교직원, 교수 등 모든 구성원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줄 것이 불 보듯 훤히 때문이다.

이에 총동문회는 지난번 총장 직선제 개선에 대한 교수평의회의 결정을 충분히 존중은 하나 그 결정에 따른 모든 구성원들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지난 결과에 연연치 않는 대승적 판단을 내려 줄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학칙개정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하나, 목포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여 지역민들의 숙원인 의과대학유치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유진하
목포대학교 재경동문회 회장 이재정
목포대학교 연합동문회 회장 박남영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회장 장웅

목포대학교총동문회 2012년 정기총회

임진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총동문회도 올 한 해 도약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2013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목포대학교총동문회가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4만 여명의 졸업동문들의 발판을 딛고 우뚝 서야 겠습니다.
2012년 정기총회 행사에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_ 2013년 1월 23일 (수) 오후 6시 30분
장소 _ 상그리아비치호텔
내용 _ 정기총회 및 만찬
참가비 _ 소정의 참가비
문의 _ 061-284-5064

총장직선제 개선에 관한 총동문회 입장 정리



지난 7월 26일(목) 유진하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7월이사회에서는 총장 직선제 개선

7월 임시 이사회

에 관련한 총동문회의 입장에 대해 논의 하였다.

목포대학교에서 준자료 내용을 토대로 긴 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성명서에는 목포대학교총동문회 회장과 재경동문회 회장, 연합동문회 회장,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회장까지 합심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8월 이사회

지난 8월 23일(목) 유진하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8월 이사회에서는 9월에 있을 골프대회를 천병식 추진위원장 및 7명으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지난 11월 27일(화) 유진하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15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1월 이사회

이번 이사회에서는 다음달에 있을 이사회&송년의 밤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면 그동안 여성 국장으로써 바쁘고중에서도 활약을 하던 이구인 여성국장님의 뒤를 이을 임미선 여성 부국장을 여성국장으로써의 즉위가 있었다.

여성국장으로 선정된 임미선 국장은 앞으로 동문회의 발전에 도움이되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동문회의 발전방향과 주요사업 논의



총동문회 사무처에서는 지난 7월 21~22일 1박2일간 목포대학교 입자수련원에서 2012년 하반기 사무처 연수를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동문회의 발전 방향과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 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간담회 개최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지난 7월 16일(월)에 다도해 가든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목포대학교총동문회와 목포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목포대학교 동문회의 위상을 높이는 모교와 총동문회, 연합동문회, 최고경영자과정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재경동문 수원 광고산 산행



재경동문회는 지난 8월 25일 이재정 회장을 비롯 17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뜨거운 여름의 마지막 산행을 하였다.

재경동문 관악산 산행



재경동문회는 지난 11월 24일 홍성돈 사무총장을 비롯 16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산행 후 산정상에서 각자 준비한 푸짐한 점심을 하고 하산하여 동문회 정을 듬뿍 만끽하고 헤어졌다.

골/프/대/회



고석규 총장 시상 - 신페리어 우승 김욱기



시타중인 유진하 총동문회장, 고석규 목포대 총장, 이재정 재경동문회장



신페리어 준우승 박계춘



골프대회 후 만찬

골프대회 도움주신분들

- 유진하 총동문회장
- 고석규 목포대 총장
- 김종국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천병식 골프대회 준비위원장
- 정영덕 총동문회 고문
- 김승진 총동문회 고문
- 이행기 총동문회 고문
- 황정호 총동문회 고문
- 허정민 총동문회 고문
- 최영수 총동문회 고문
- 정원석 총동문회 고문
- 전호문 총동문회 부회장
- 김재기 총동문회 부회장
- 마영식 총동문회 부회장
- 정을섭 총동문회 이사
- 박승건 박스안경원



매너상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재경동문회



행운상

제8회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동문친선골프대회 수상자 명단

- 신 페 리 오 우 승 김욱기(체육80)
- 준우승 박계춘(전자공학과 교수)
- 니얼리스트 정경무(경영행정대학원)
- 롱 게 스트 박용주(체육81)

* 제8회 동문친선골프대회 추진위원회

- 위 원 장 : 천병식(경영86)
- 추진위원 : 김종국(원육87), 정미희(체육84), 정성태(경영90)
- 김영호(무역91), 박권철(무역89), 윤관영(경영98)



골프대회에 빛나는 삼인방

|주| 사람과 사람들



Webhard ID : saram3372 PW : 3372

소량책 / 책자표지 / 브로슈어 / 카다로그 / 리플렛 / 팜플렛 / 포토북 / 포토앨범 / 신문 / CI / BI / 교지 / 문집 / 보고서 / 포스터 / 홍보물 / 옥외광고 / 실사출력 / 현수막 / 조형물 / 판촉물 / 전시홍보

목포시 용해동 114-38 T. 061-274-3372 F.061-274-3375

디지털 인쇄/출판 POD(주문형 인쇄 서비스)

사람과 사람들 남경치과 1층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목포비전스쿨 대표 김지숙 (미술/91)

“나는 특별한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면 막연하게나마 “남에게 피해는 안주고 살고 싶다.”라든지 “나는 그래도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든지 하는 각자만의 바람이나 소망을 담은 생각들을 품고 있다. 각자의 마음속의 바람이나 소망은 어릴 적의 생활환경이나, 그 환경을 받아들였던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똑같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우리자신의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으나 돈 그 자체보다는 돈으로 자기와 같은 환경에 놓인 이들에 대한 배움과 나눔의 삶을 마음

깊이 꿈 꿀 수도 있다. 자신이 어떤 이유로 먹었던 간에 자신이 품은 마음 속 생각과 바람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여년 전 여고 시절 친구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반가운 마음으로 만난 적이 있다. 20대 초반부터 연락이 끊긴 지라 우리는 그 공백만큼 서로에게 묻고 질문할게 아

주 많았다.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어떤 생각과 마음을 먹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지금은 무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고 친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친구나 내가 놀랐던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이다. 집안이 어려운 난 목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때 내 생각처럼 나는 한 번도 목포를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다.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살 거야, 여기에서 안주 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늘 품어왔었고 공부에 대한 열의를 늘 가지고 있었다. 친구는 대학원 졸업 후 호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수년을 보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혹을 넘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우리의 노년의 모습을 좌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바르게 정말 온전하게 품고 가야할 꿈과 비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의 품은 생각이 온전한 것이어야 우리의 노년도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가 살아온 절반의 인생을 돌아보면 굴곡이 보이고 바르지 못한 마음가짐이나 반성되고 후회되는 점들도 보인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불혹에 내가 품어야할 꿈과 비전을 다시금 재 정립해 보는 연말이 되고 또 희망찬 새해가 되길 기도해본다.

여행 칼럼

사무처장 박권철(무역/89)

한 겨울에서 한 여름으로 날아간 앙코르왓트 여행기

때마침 찾아온 대설과 영하의 추위속에 출발이 지연되어 겨우 도착한 캄보디아 공항이 우이를 처음 반긴것은 아직도 추위에 떨던 몸을 확 달아오르게 만드는 숨 막히는 더위! 드디어 한 겨울에서 한 여름으로 순간 이동을 실감케하는 3박5일의 캄보디아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첫날 피곤한 몸을 추스르기 위해 가벼운 관광으로 시작하여 둘째날 드디어 우리 여행의 목적이었던 앙코르왓트를 찾았다. 현장에 내려 앙코르왓트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입을 다물수 없었다. 1000년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는 믿을수 없는 신비의 사원 앙코르왓트 앞에서 그 거대하고 웅장함과 정교함까지 어느것 하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세월 자연에 방치되고 오랜시간 내전을 겪고 수많은 도굴로 인해 너무 많은 훼손으로 여기저기 보수를 하고있었지만 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며 왜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지 알수 있었다. 마지막날은 동양최대의 호수라는 톤레삽을 찾아 수상가옥촌을 들렀다. 건기시 제주도 면적의 1.5배 우기시 3배에 이른다는 호수 톤레삽은 오수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거대했기에 수형선이 보이는 드넓은 바다였다. 베트남 전쟁시 베트남을 떠나 자리잡기 시작하며 형성된 수상가옥촌은 베트남 난민이란 이유로 육지에 발을 디딜수 없어 물위에 집을 짓고 호수의 물고기를 잡아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이 비록 고단하지만 거대한 호수의 품이 아니면 또한 이들을 받아들 곳이 없어 톤레삽은 그들의 안식처 였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원조까지 해줄만큼 동남아에서 부흥했던 나라 캄보디아는 잘못된 지도자들의 정책과 전쟁으로 세계 10대 빈민국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앙코르왓트와 톤레삽 호수를 보며 캄보디아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한 여름에서 다시 한 겨울로 돌아와 3박5일의 캄보디아 여행을 마쳤다.



전남 최초의 방과 후학교 사회적기업

김재기(화학, 86) 부회장을 만나다

작년 가을 다소 생소한 방과후학교 로봇과학교실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용로봇 유통업을 하는 김재기 동문(화학86,부회장)을 만났을 때만 해도 15평 남짓한 오피스에서 숙식을 하며 2012년 3월 개학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에서 20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약 1년 만에 전남 최초의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김재기 동문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Q1. 1년 만에 다시 빛게 되었는데 이번엔 전남 최초로 방과 후학교 로봇, 과학전문 사회적 기업에 선정 되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방과후학교가 현재 한국 교육시장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고가의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에 편성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의 약 6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로봇교육과 과학실험교육은 국가의 미래 과학인재 육성이라는 중요한 과제 실현의 핵심적인 분야이기에 매우 중요한 방과후교육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과학 실험분야는 대부분 사설학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나마 강사의 품질을 검증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외계층 아이들은 수업을 받고 싶어도 비싼 교구비와 실험실습비 때문에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과학자의 꿈을 꿀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꿔보고자 전라남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방과후 과학전문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 소수의 차 상위계층의 아이들도 과학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2. (주)로봇과학아카데미 만의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장점이 있다면,

당사는 로봇과학교실, 과학실험 논술교실, 과학체험학습, 유치부 방문로봇교실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교육 전문기업입니다. 저 외에 2명의 연구원은 늘 좋은 수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최근 유치부 방문로봇교실과 과학실험 논술교실, 과학체험학습의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어 2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로봇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처럼 교구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강사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최고의 교육용 로봇을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국내 교육용 로봇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순천에 본사가 있는 지역기업인 '휴나로보'라는 제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학실험 논술교실은 현재 4명의 강사가 모두 목포대학교 화학과 졸업생인데, 이 중 3명이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엘리트이며 학생교육경력이 전부 10년이 넘은 베테랑입니다. 또 12년 동안 과학 논술교육을 전문으로 해온 강사 1명으로 구성되어 단연 목포에서 최고의 강사진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Q3. 이력이 다양하시는데 대학졸업 후 지금까지의 이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완도 보길도에서 태어나 문태고를 졸업하고 1986년 목포대 화학과에 입학하여 전공 공부에 매진하는 동시에 환경산업기사 자격취득에 도전하여 3학년 때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환경기사 취업을 꿈꾸며 환경기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성이 맞지를 않아 고민하던 중, 졸업과 동시에 화학과 커플이었던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공채시험에 합격하였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전국신인왕' 으로 뽑히는 등 높은 판매실적을 올리며 풍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환경운동이라는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7년에는 목포 MBC의 '남도 남도사람들'이라는 TV프로그램에 '환경운동하는 자동차 판매왕'이라는 제목으로 20분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부친께서 갑작스럽게 취장암으로 작고하시면서 집안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의지만 가지고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퇴직과 동시에 시작한 식당을 시작으로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중고차 매매상, 현대자동차 대리점직원, '보길도 전복'이라는 식당, 시스템어커피 영업, 수제 소시지 장사, 대우자동차 영업사원, 보험회사 판매원 등 그야말로 밀비타다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꿈꾸는 일, 가슴 뛰는 일을 하여 성공하고자 말겠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7월 (주)로봇과학아카데미의 전신인 '휴나로보'를 창업하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Q4. 가족들이 참 고생하셨겠습니다. 가족들에게 한마디만... 가족들에게 지난 13년 간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제대로 서포터해주시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방학 때마다 외가집인 강진에서 1달 정도 지내야했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흔한 영어학원 한번 못 보내고 20만원 하는 종합반에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큰딸이 지금 문태고 3학년인데,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며 열심히 공부해 문태중을 1등으로 졸업했고 고등학교 3년간 남부급과 급식비, 기숙사비까지 장학금으로 받아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오죽하면 저의 어머니는 작년 7월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하자 '너는 뭐든지 해도 안 되니 그냥 월급 150만원 주는 곳 있으면 취업하라' 고 했겠습니까?

수차례 실패를 해도 오늘까지 항상 저의 가능성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아내와 저의 후원자이자 친구인 이경택 원장, 그리고 저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또 저의 멘토 중에 한명인 동문회 전병식부회장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Q5. 앞으로의 포부와 실패를 많이 하신 분들께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직업을 12번이나 바꾸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나는 내가 꿈꾸는 일, 가슴 뛰는 일을 찾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성공하고자 말겠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실패를 할 때의 순간에는 정말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패의 경험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실패를 해서 오죽하면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은 제게 '요즘은 무슨 일 하나?' 고 묻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 는 말을 가슴에 품고, 오지 여행가인 한비아 씨의 말처럼 저를 미치게 하고 제 가슴이 뛰는 일을 2011년 7월 찾았고, 황농문 교수의 '물입' 을 읽고 15평 오피스에서 24시간 일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15년의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하면서 꿈꾸었던 상생, 그리고 '함께 사는 길' 을 가기위해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 것입니다'

목포대, 졸업생 408명 학위수여식 개최



408명의 동문 탄생

우리대학교는 지난 11월 22일(수) 오전 11시에 목포대학교 박물관 대강당에서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학사 339명, 석사 54명, 박사 15명 등 총 408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새로이 우리대학교 동문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목포대 2013 수시1차 모집 경쟁률 9.8대1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 상승

우리대학교는 2013학년도 수시1차 모집에는 특별전형(농어촌전형 등 4개전형) 120명, 입학사정관 전형(MNU인재전형 등 3개전형) 200명 총 320명을 모집한 결과 특별전형 9.33:1, 입학사정관전형 10.09:1로 평균 9.8:1을 기록했다. 목포대 최근 3년간 수시모집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1학년도 5.37:1, 2012학년도 6.22:1, 2013

학년도(수시1차) 9.8:1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목포대 입학관계자는 “올해 목포대 수시1차 모집 결과 높은 경쟁률을 보인것은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대학 특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라고 말했다. 또한 신 해양시대 리더를 향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의과대학 설립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목포대, 몸소 실천하는 작은 사랑의 지역봉사활동 펼쳐



우리대학교는 30일(목) 무안군 청계면에 위치한 엘림복지타운 노인요양원에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목포대 고석규 총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소외된 모든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목포대학교 교직원 자원봉사단은 지난 2010년 6월 발족하여 매월 한차례씩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장애우, 어르신, 아이들에게 목욕, 말벗, 레크레이션, 환경정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목포대,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선정

국립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목포대학교는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여 지역소재 초·중·고등학생에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대학교는 사회적기업인 (주)목포대어울림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전라남도방과후학교지원단장을 비롯하여 목포·무안·신안·함평교육장이 참석하여 방과후학교사업의 실무적인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역 예술 체육 발전 견인-목포대 창조관, 개관

국립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은 오는 11월 27일 화요일 16시에 창조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창조관은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의 음악과, 미술학과, 체육학과가 자유롭고 활발한 창작과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주홀, 갤러리, 첨단 강의실 등을 포함하여 지하1층부터 9층까지 전체 10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대학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와도 활발한 교류활동을 떠나갈 예정이다.

창조관 개관 행사는 총 3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과 개관 기념 교수 음악회, 체육학과 개관 기념 퍼포먼스(요가&필라테스 바디), 미술학과 개관 기념 교수 작품 전시회 실시 등으로 90여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목포대학교는 이번 창조관 개관으로 지역의 예술·체육분야 발전에 목포대학교 크게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삼고자 한다.

목포대, 인라인롤러부 박찬영 대회신기록 세우며 최우수선수 수상



국립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 인라인롤러부(지도교수 김선희)가 여수 진남롤러경기장에서 11월 17일부터 4일간 펼쳐진 ‘제31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에 출전하여 300m, 1,000m, 3,000m계주 우승과 함께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최우수선수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목포대학교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최우수선수와 대회신기록을 기록하는 등 각 부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012년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뜻깊은 수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 1위 박찬영(체육1/300m 대회신기록 및 최우수선수)
- 1위 박형상(체육1/1000m)
- 1위 최원희(체육3), 박찬영, 박형상 / 3000m 계주

목포대, 국내 최대 교육용 풍력발전기 준공

목포대학교(고석규 총장)는 11월 27일 목포대학교 대외협력관에서 정부의 2.5GW 해상풍력단지 개발계획과 세계 5대 풍력산업 허브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5GW 풍력 프로젝트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풍력발전기 준공식”과 “해상풍력서비스인력양성 발전방안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석규 목포대학교 총장, 정종득 목포시장,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추진단장, 홍종희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독일 OffTEC 풍력아카데미의 Dirk Carstensen Project manager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목포대학교 LINC사업단(박순영 단장)이 해상풍력과 신해양산업에 필요한 해상풍력서비스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럽 선진국의 전문 교육 기관의 전문가와 우리 지역의 산·학·관 관계자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목포대학교의 풍력발전기 준공을 축하하고, 해상풍력발전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선진 교육시스템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이번에 세워지는 목포대학교의 풍력발전기는 국내 교육용으로는 최대인 스페인의 ACSA-A27모델의 중형풍력발전기로 타워높이가 31.5M, 회전지직경 27M, 정격출력이 225KW에 이르며 총사업비 7억1천5백만원이 소요되었다. 목포대학교는 이 발전기에서 얻어지는 전기는 대학의 유류 전력으로 활용하고, 해상풍력서비스인력양성의 현장실습과 다목적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연이어 열리는 해상풍력서비스인력(O&N)양성 양성방안 초청강연에서는 유럽 해상풍력 서비스인력 양성의 현황 및 교육과정 소개하고 목포대학교의 해상풍력서비스인력양성 방안과 향후 교육 과정의 지표를 세울 계획이다.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은 “본 준공과 포럼을 통하여 목포대학이 해상풍력과 신해양시대의 해상풍력에 특화된 서비스인력 양성을 통하여 해상풍력산업이 지역산업을 리더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 주력산업으로 기반을 확고히 하길 기원하며, 이를 위해서 맞춤형 인재들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까지 영광·부안지역 해상에 민관 합동으로 9조2000억을 들여 2.5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2019년 이후 7.7GW 규모로 확장하여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전라남도는 세계 5대 풍력산업 허브 구축을 목표로 5GW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문/탐/방

2012. 대한민국 新지식경영 대상 수상

이기식(체육, 91) 동문을 만나다

최근 경기침체로 길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웃음 지을 날이 없다’는 한숨만 가득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우울, 분노 등을 조절하지 못해 자살, 폭력, ‘묻지마 범죄’ 등의 극단적 행동이 난무할 정도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은 지금, 웃음 힐링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에 웃음을 화두로 삼아 사회 곳곳에 건강과 행복,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웃음상품 산업화’의 새 장을 열고 있는 국제웃음요가문화연구소 이기식 스마일박사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기대를 갖고 있는 이 부소장의 평소 모습이 가능되는 별명이다. 또한 그는 교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틈틈이 기업, 지자체, 농협, 교육청, 초중고교 및 대학, 보건소, 경찰청 등 각급 기관·단체에서 지금까지 1,0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하며 ‘웃음 선도사’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엔 목포대학교 대학원 레저스포츠학과에서 ‘웃음상품 산업화’의 주제를 담은 발전방안 연구로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웃음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개발해 파는 것, 곧 산업화로 확대’의 뜻을 담은 ‘웃음상품 산업화’는 개인 및 기업·단체가 웃음, 유머, 웃음경영기법(FUN경영) 등을 도입해 행복한 삶의 영위와 생산성 증대를 구현하기 위한 ‘웃음힐링 멘탈코칭’이 핵심 키워드다.

웃음경영기법 전파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개인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고 후진양성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12 대한민국 신지식경영 대상(시사투데이, 동아일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이러한 웃음상품을 개척하여 사회에 봉사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웃음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범국민 행복추진 운동은 우리 모두의 화합과 개인자신의 성찰이 기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더욱 큰 힘을 가지게 된 것은 배움터인 대학 총 동문 선·후배님들의 응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프로필
- 레저스포츠산업학과 박사학위 취득
- 국제웃음요기문화연구소 부소장 / 웃음요기치료사 1급 /
- 전) 목포과학대학 겸임교수 대불대, 목포대 평생교육원 전문강사
- 남부대학교 평생교육원 국제웃음요가 주임교수
- 서울교육원 수석 강사 / 청소년문화연구소 위원
- 한국웃음요가 1급 명강사 수료
- 지자체 및 기관 전문강사 그의 다수 강의

동문회장 동정

승림축제참석

최경영사 과정 승림축제참석
●일시 : 2012년 5월 26일
●장소 : 목포대학교 승림캠퍼스



승달산 등반

목포대학교총동문회, 제경동문의 승달산 등반
●일시 : 2012년 5월 26일
●장소 : 승달산



대동제 참석

목포대학교 대동제
●일시 : 2012년 10월 9일
●장소 : 목포대학교



2012년도 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회장 :	유진해(무역/79) 5,000,000원	
수석부회장 :	김종국(원육/87) 1,000,000원	
고문 :	윤소하(경영/80) 150,000원	
정계식(지역/80) 1,000,000원	황정호(국문/83) 300,000원	
허정민(사학/85) 300,000원	이행기(지역/83) 300,000원	
정영덕(지역/83) 300,000원	이정봉(화학/81) 100,000원	
부회장 :	고영근(무역/80) 300,000원	김용민(경영대학원) 300,000원
정미희(체육/84) 100,000원	김하현(대학원) 300,000원	
박종규(무역/79) 100,000원	나훙진(미술/83) 300,000원	
서정민(경제/87) 150,000원	오승원(물리/84) 300,000원	
김재원(경영행정대학원) 300,000원	홍영삼(경제/08) 300,000원	
김용기(지역/83) 300,000원	김재기(화학/86) 300,000원	
천형식(경영/88) 300,000원	나춘남(경영행정대학원) 100,000원	
김영호(무역/91) 300,000원	이지호(미술/82) 300,000원	
감사 :	정경주(생물/82) 200,000원	
이사 :	변철진(사학/93) 100,000원	조성문(사학/99) 100,000원
조영민(일본/95) 100,000원	박권철(무역/89) 100,000원	
양인선(생물/90) 100,000원	이현성(무역/92) 100,000원	
범은혜(미술/98) 100,000원	엄재훈(원예/88) 100,000원	
박근수(무역/85) 100,000원	강 학(행정/80) 100,000원	
김석홍(원예/85) 100,000원	김영석(일본/95) 100,000원	
이기식(대학원) 100,000원	정해충(지역/78) 100,000원	
서재갑(화학/83) 100,000원	정미래(원육/86) 100,000원	
김경희(경영/81) 100,000원	문유정(경영/04) 100,000원	
김인선(금보/03) 100,000원	박은주(금보/02) 100,000원	
김연정(무역/030) 100,000원	오혜진(경영/00) 100,000원	
정운희(미술/98) 100,000원	정영희(사학/81) 100,000원	
정성태(경영/90) 100,000원	윤관영(경영/98) 100,000원	
박문욱(정의/94) 100,000원		
지원위원 :	박지원 100,000원	

총 : 54명 계 : 15,500,000원
이사회비납부계좌 안내 : 국민은행 568301-04-026077
【목포대학교총동문회】

장학기금 납부안내

국민은행 796201-01-192932
예금주 목포대학교 총동문회

목포대동문회보 21호 (2013년 0월) 발간안내

목포대학교총동문회에서는 동문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년4회(1회 10,000부) 동문회보를 발간합니다. 동문회보는 동문의 일상사(훈인, 승진, 개업, 이진, 수상, 출판, 전시 등)와 학과, 지역, 직장, 동아리, 학회별 모임의 행사소식, 모교의 행사소식, 총동문회 주요사업을 실어 크고 작은 애기거리로 풍성하게 구성되어 동문 여러분들께 알찬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동문회보에 게재하고 싶은 소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취재해 게재 하겠습니다. 총동문회 홈페이지와 동문회보, 더 나아가 목포대학교총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4만 동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 (061) 284-5064
팩스 : (061) 284-8339
홈페이지 : www.mpuob.org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유치 서명운동,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명등록부 서명하기

국립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서명등록부

연번	성명	주소	서명
1	박지연	전남 목포시 상동 신동아파트	박지연
2	김석규	전남 목포시 삼죽로 22-1번	김석규
3	최태훈	목포시 용두동	최태훈
4	정동원	목포시 삼죽로	정동원
5	박근영	목포시 용두동	박근영
6	이병훈	목포시 용두동	이병훈
7	이윤성	목포시 용두동	이윤성
8	김민호	목포시 용두동	김민호
9			
10			
11			
12			
13			
14			
15			

본 서명은 의과대학 설치 및 홍보 용도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수집 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국립목포대학교 기획평가과
전화 : 061) 450-2052~3 팩스 : 061) 450-2057

서명등록부는 인터넷 <http://sign.mokpo.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목포대학교로 연락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서명하기



목포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에 주소입력후 서명참여

모바일 서명하기



QR코드 인식하여 모바일 서명참여

서명문의 TEL 061-450-2052~3 FAX 061-450-2057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기획평가과

의과대학유치 홍보 CF



QR코드 인식하여 의과대학유치 홍보CF 보기

